

ISSUE & FOCUS

Newsletter 201

청년들에게 꿈꿀 자유를 허하라

김 용 재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 대외협력담당관

※ 이 글은 필자의 견해로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꿈꿀 수 있는 자유

9월 초 동아시아 학회 참석 차 영국 런던에 다녀왔다. 한중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관하여 발표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지만 브렉시트 (Brexit) 국민투표 이후 동향에 대한 궁금증 역시 영국행을 결정하게 한 이유 중 하나였다. 허나 기대가 컸던 탓인지 특별하게 느껴지는 코멘트들은 많지 않았다. 논조에 다소간 차이는 있었지만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농민, 노동자 층의 투표 때문에 일이 잘못 되었다.”, “도시 사람, 지식인층은 유럽연합 잔류를 희망했다.”,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이 나라 경제를 고속도로에서 내려서게 만들었다.” 등 대체로 탈퇴 결정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모인 사람들 성향 자체가 지역협력에 관심이 많은 학자들이기에 당연한 일일수도 있지만 다양한 분석을 기대했던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울 따름이었다.

아쉬운 마음은 귀국을 하루 앞둔 저녁, 조지 오웰 원작인 1984 뮤지컬을 관람하고 자 찾은 템즈강 변의 더플레이하우스 극장에서 우연히 만난 영국 청년들 덕분에 달랠 수 있었다. 극장 옆자리에 앉은 인연으로 시작된 대화가 맥주를 동력삼아 자정 넘게

이어지면서 보다 풍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 청년이라지만 그들의 말을 빌리자면 스코틀랜드 사람 둘, 잉글랜드 사람 하나였다. “영국(Great Britain) 사람 아니냐?”는 질문에 정색하면서 각자의 고향을 밝히던 이 청년들은 브렉시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사뭇 진지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브렉시트로 인하여 자신들이 꿈꾸고 계획했던 것들을 실현하기 어려워질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리스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자연주의 요리를 배우고 돌아와 식당을 열겠다는 에드워드, 미대를 졸업하면 동유럽 각국 명소들을 여행하면서 그림책을 만들겠다는 듀켓, 그리고 프랑스 남자친구를 따라서 파리에 가서 카페를 열고 싶다는 앤까지 세 사람 모두 브렉시트로 인하여 지금까지 자신들이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이 불편하고 복잡해질 것이라면서 답답해했다. 영국 청년실업률은 5%대로 1970년대 이래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으니 취업에는 문제가 없지 않겠냐는 필자의 반문에 그들은 일자리를 얻느냐 여부보다 어떻게 살아갈지 꿈꿀 수 있는 자유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며,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통해 정치인들이, 그리고 기성세대들이, 이 자유를 빼앗아 갔다고 주장했다.

우문현답에 대한 감동도 잠시, 꿈꿀 수 있는 자유라는 표현이 한동안 잊고 있었던 학부 시절 꿈들을 떠오르게 했다. 필자는 학부 시절, 한국, 중국, 일본 청년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3국간 물리적, 감정적 경계도 완화되고, 아시아에 온전한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동경대, 북경대, 복단대, 대만국립대 학생들과 함께 국제포럼을 만든 바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꿈은 어느새 정부간 협력으로 실현되고 있었고, 학생 때부터의 열정을 인정받은 덕분에 한중일 3국 정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협력사무국에서 근무할 기회 또한 얻을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꿈이 있었기에 올 수 있었고, 그 꿈을 존중하고 응원해준 가족과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길이었다. 회상 끝에 생각은 2016년 현재의 한국 청년 문제로 이어졌다.

돌아온 취업 시즌, 꿈꾸지 않는 청년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강연 및 브리핑을 갈 때면 늘 잊지 않고 학생들의 꿈을 물어본다. 흥미로운 것은 학생들의 대답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줄어들거나 미정이라는 두 글자로 마무리된다는 점이다. 하반기 취업 시즌에 들어선 올 여름 이후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청년 모인 곳 어디를 가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설렘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다. 사실 어느 세대, 어느 시기로 돌아가 물어도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과정이 수월했다는 경우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나름의 고충과 고뇌가 서사시처럼 펼쳐지곤 하니까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처럼 침체된 분위기는 IMF 외환위기 당시 이후로는 처음이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올해 상반기 청년 실업률은 10.8%를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서울 소재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소위 말하는 스펙을 잘 쌓은 청년들도 취업 문턱을 쉬이 넘지 못해 재수, 삼수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 큰 문제는 취업에 성공한 이들도 10명 중 3명이 3년 이내에 사표를 쓰고 있을 만큼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현실이다.

취업난을 비롯한 여러 청년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존재한다. 국제적인 저성장 기조는 물론,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같은 거시적 차원의 문제부터 요즘 청년세대들의 ‘도전회피’적 경향을 지적하는 입장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 또한 넓다. 지방정부, 그리고 각 정부 부처의 다양한 해법들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안되고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없어지는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창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거나 실업소득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집행하는 데 17 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정책의 효과는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치솟는 청년실업률을 잡아 내리는데 성공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르는 난망한 것으로 보인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증상 해결에만 초점이 맞춰져있을 뿐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는 이전처럼 단순히 노동력과 일자리의 수요공급 불균형의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4차 산업혁명의 여파로 기존의 전형적이고 안정적인 평생직장들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으며, 살면서 평균 3~4가지 직업은 경험해야 할 만큼 구조적 변화가 극심한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나 대기업 주도로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을 일자리 틀 속에 밀어 넣으려고 하는 대신, 마치 3D프린터에서 다양한 사물,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청년들 스스로가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방점을 뒀야 한다. 즉, 청년들이 꿈꿀 수 있게 하고 그 꿈을 지원해주는 사회를 만들 때 비로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누가 청년들에게서 꿈꿀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해갔는가?

우리에게는 영국 청년들이 고민하는 브렉시트와 같은 장애물은 없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과 꿈꿀 수 있는 자유를 억압하는 빅브라더가 실존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빅브라더는 청년들의 꿈을 포기하도록 만든다. 사회로 나아갈 시간이 다가올수록 포기에 대한 압박은 커진다. 사그라지지 않는 고시, 사관학교 열풍과 ‘신이 숨겨둔 직장’, ‘신도 모르는 직장’이라고 불리는 안전한 길만을 권하는 사회적 풍

조 속에서 청년들이 자신만의 꿈을 향해 도전해가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부모 형제와 선후배의 충고들조차 꿈을 발전시키고 응원하는 대신 빅브라더의 일부로 작동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이쯤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서 꿈꿀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교부 주최 공모전 시상식에서 만난 한 학생의 이야기는 이러한 세태를 잘 보여준다.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을 돕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정책 아이디어를 내다보니 어느새 공모전 장관상만 세 개째 타고 있고요. 허나 그러다가 밥 굶기 쉽다는 부모님과 여러 선배들 말씀을 거스를 수 없어서 모교 교직원 선발에 거듭 지원했고, 얼마 전에 드디어 합격 통보를 받았답니다. 무슨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이 숨겨둔 직장이라고 하니 어떻게든 되겠죠.”

분명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한국의 미래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잠재력 있는 꿈은 진지한 토론과 질문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으며, 진지한 토론과 질문에는 장(場)이 필요하다. 지난 6월 출범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청년학포럼’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기에 최적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학포럼’이 기성세대와 청년이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학문으로 정립하는 소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청년이 꿀 수 있는 꿈의 크기가 곧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의 밝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하반기 취업준비생들의 건승과 한반도선진화재단 청년학포럼의 건실한 발전을 기원하며 이만 줄인다.

※ 내 마음같은 정책을 만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후원문자를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